

출판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무장해 자신만의 '꿈'을 펼쳐보려는 출판인들은 끝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출판저널>은 출판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출사표를 내민 새내기 출판인들의 목소리를 담으며 우리 출판문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려 합니다.(편집자 주)

새내기 출판사들의 출사표!

토네이도

경제·경영주력... '문화담론 포용한 콘텐츠 그룹' 모색
'출판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견인 모델 제시할 터'

출판사 이름으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토네이도' 출판사의 이름에 대한 연원(淵源)을 묻자 오영진 주간은 "첫걸음을 내딛는 출판사여서 조용하고 잔잔한 이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지는 강렬한 이름을 모색하던 중 발견한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한 번 들으면 그만큼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출판시장의 위기를 말하는 요즘, 토네이도는 "출판은 언제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면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출판인의 길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자나 깨나 책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기획하고 편집하고 마케팅 플랜 짜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이 오 주간의 설명이다.

토네이도는 지난 3월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재테크 서적을 시작으로 4월에 <팀장 3년차>를 선보였다. 토네이도의 1차 목표는 경제·경영 분야에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비소설과 문학, 실용, 아동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문화담론을 포용하는 콘텐츠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토네이도는 앞으로 개인보다는 '조직의 지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뛰어난 인재들이 출판 시장에서 등을 돌리는 이유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뛰어난 조직이 드물기 때문"이란 판단 때문이다. 지능 높은 뛰어난 조직이 출판시장의 양적 발전과 질적 성장을 견인한다면 한국 출판시장의 미래는 밝다는 게 토네이도의 생각이다.

취재_정동식 기자

다밋

'거룩한 곳'에서 책잔치를 벌이다
실용과 자기개발의 퓨전을 맛보세요!

"고조선 시대에 있어 하나의 부족이 나라를 세우고 도움을 정할 때에는 선애의 가장 크고 높은 산악이 뽕뽕로 정해지는데, 뽕뽕은 곧 선악을 뜻하며 그 중 가장 험준한 봉우리를 다밋 혹은 부루라고 하여 특별한 의식으로 받들었다." 육당 최남선의 말이다. '다밋'은 이처럼 옛 우리말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영문으로는 Dameet, 즉 '모두(Da) 만나다(Meet)'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전민상 대표는 "도서출판 다밋은 이처럼 거룩한 마음을 담아 모든 사람에게 읽힐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출판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다밋은 상업적인 가능성이 적은 책이라도 내용이 탄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꾸준히 팔릴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물론 전문분야는 있다. 건강을 통한 자기개발, 음식으로 건강해지기+체질과 역학, 문학+여행+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 동물들에 대한 이해+자기개발, 문학+자기개발 퓨전화 된 책을 만들 생각이다.

특히 다밋은 대표를 비롯해 기획 편집, 디자인·제작, 영업 등 각각 1명씩 4명이라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탄탄한 구성원 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독자를 책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낸 책들은 독자층이 그리 두텁지 않은 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의외로 독자층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전 대표는 "독자의 마음에서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에 출판사를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지금의 자신을 키운 것은 책이었기 때문이다.

취재_신동섭 기자